

※ 2022년 1월 18일(화) 09:00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직속 국가인재위원회

**담당자** 유윤진 선임팀장(010-4500-5640), 권훈 선임팀장(010-5333-3368)

## 與 선대위, JTBC 이정현 · YTN 안귀령 앵커 영입

- 공보단 대변인 겸 미디어센터 센터장 · 부센터장 활동 예정
- 28년차 베테랑 이정현, “품격 있는 말로 이재명 후보 진정성 전달”
- 30대 안귀령, “청년 ·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송 개혁에 힘 보태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직속 국가인재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총괄 단장 백혜련)는 18일, JTBC 아침뉴스 간판 앵커인 이정현 기자와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을 진행해 온 안귀령 앵커를 국가인재로 영입 발표했다.

이정현 기자는 JTBC 사회1부 차장과 중앙일보 국제부 차장, 도쿄특파원을 지냈으며, 4년 6개월간 JTBC <뉴스 아침&> 메인 앵커로 생방송 뉴스를 진행해 왔다.

이 앵커는 뛰어난 전달력과 안정감 있는 뉴스 진행으로 시청자들의 신뢰를 받아왔으며, 선대위에서 후보 메시지와 공약을 국민에게 바르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정현 앵커는 “언론인으로서 정제되고 품격 있는 말과 글로 시청자와 독자의 신뢰를 얻었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을 전달하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선대위 참여 포부를 밝혔다.

안귀령 앵커는 YTN 뉴스 프로그램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이하 뉴있저)’의 진행자로 이름을 알렸다. ‘뉴있저’ 진행 당시 예리한 분석과 날카로운 보도로 권력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평가받는다.

안귀령 앵커는 “비정규직 앵커 출신 30대 청년으로서 청년 문제 해결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송 개혁 등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으로 합류할 예정이며, 이정현 앵커는 선대위 미디어센터 센터장으로, 안귀령 앵커는 부센터장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끝/

### <언론인 국가인재 프로필>

사진	주요경력
	<p><b>이정현 (만50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1년, 전북 전주 출생</li> <li>• 서강대학교 영문과 졸업</li> <li>• 2017~2022 JTBC 뉴스 아침&amp; 메인 앵커</li> <li>• 2014~2017 중앙일보-JTBC 도쿄특파원</li> <li>• 2013~2014 중앙일보 국제부 차장</li> <li>• 2011~2013 JTBC 기자</li> <li>• 1997~2011 JTV전주방송 기자</li> <li>• 1994~1997 광주MBC 기자</li> </ul>
	<p><b>안귀령 (만32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9년, 경북 경주 출생</li> <li>• 이화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li> <li>• 2016~2022 YTN 앵커(뉴스가 있는 저녁, 뉴스출발 등 진행)</li> <li>• 2015~2016 KBC광주방송 아나운서(8뉴스, 생방송투데이 등 진행)</li> </ul>